

# 해남군 기관평가 역대 최다 108건 수상

올해 군정 종합평가 최고 성적  
농정분야 대상 4관왕 달성  
공약실천 6년 연속 최우수상

해남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 108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8건 늘어난 수치로, 해남군정에 대한 대외평가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은 올해도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최우수상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정책사례

최우수상, 한국지방자치경연대상 기후환경대상, 한국소셜컨텐츠진흥협회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또 전라남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성과평가 대상,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도시대상 기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및 지방소멸 대응 유공기관 표창 등 군정의 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농어촌 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분야에서 상이 대거 쏟아졌다. 전라남도 농정업무종합평가와 농식품유통평가에서 3년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또 친환경농업 업무평가 대상 등 농정분야 대상 4관왕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전남도 농업 중심지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와 함께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

선8기 기초단체장 공약평가에서 전남 유일하게 6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획득하고,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 등 공평·공정·공개의 군정 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도 이어졌다. 해남미남축제는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3년 연속 선정됐다. 강해영 프로젝트가 트래블쇼 2024 최우수 콘텐츠상을 수상했으며, 2023-2024 시즌 전지훈련 시군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관광·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연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뜻깊은 마무리가 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내년도 전 군민이 합심해 해남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김현수(왼쪽 네번째) 진도군수 등 관계자들이 다산목민대상 본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진도군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

200억 들여 3년간 문화환경 조성

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돼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며, 지정된 도시는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진도군은 2023년 12월29일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선정된 후 지난 1년간 예비 사업 추진과 조성계획 컨설팅,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번 최종 지정에 이르렀다. '민속문화예술로 만드는 진도살이의 미래풍경'이란 목표 아래 진도문화도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주요 성과로는 '프로듀스 진도(남도명인 예학당)' 프로그램을 통해 약 350명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 민속문화의

가치와 정수를 전달하는 교육과 실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삼락장터'와 'K-민속문화 글로벌 도시축제'를 통해 도시 기반 장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참여형 문화공간과 축제의 장을 조성했다. 특히 진도군은 시(詩)·서(書)·화(畫)·창(唱) 등 뛰어난 전통 문화적 자원을 활용해 도시의 문화적 매력을 널리 알렸다. 진도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향후 3년간 사업비 200억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진도군만의 독자적이고 풍요로운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1년간 추진했던 예비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능성을 확인한 중요한 과정이었다"면서 "민속문화의 섬, 진도"를 비전으로 삼아 고유한 전통과 민속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완도군 민관 협력  
외판섬 해양쓰레기 수거  
마삭도·어룡도 30t 처리

완도군이 외판섬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외판섬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은 육지와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이 어려움에 따라 군 어장 정화선과 주민들의 어선, 크레인 등을 동원해 펼친다. <사진> 군은 9개 읍면, 37개 섬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관이 협력해 최근 노화읍 마삭도, 어룡도에서 페어구, 부표, 폐그물 등 약 30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도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을 군 역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민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수거·관리 지원 역할을 하는 '외판섬 해양쓰레기 신고 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쓰레기는 주민 생활 전반은 물론 수산업과 해양치유,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 신안군 올 공공예금 이자 수입 89억원

약조건 딛고 효율적 재정운영  
지난해 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신안군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올해 89억원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올렸다. 이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지속하면서 국내 내수 경기 침체와 세수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둔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2023년 공공예금 이자 수입 48억원보다 약 41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경기 불황에 따른 세입 감소를 예측하여 실시간 계좌 모니터링을 통한 예금 분산 예치

와 장·중·단기 순환방식을 적용하는 등 선제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신안군은 내년도도 정기예금의 기간과 이자율 비교, 단기 이자 수입 확보에 효과적인 수시 입출금계좌(MMDA) 개설하는 등 군 자금 여건에 맞는 최적의 장·중·단기 예금상품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 세입·세출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주·월별 자금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통예금의 유휴 자금을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열악한 군 재정 살림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식을 강구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 25억 돌파

소아과 개설 등 기금사업도 주목

영암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누적액이 25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억 3000만원 넘게 모금해 전국 기초지자체 2위의 실적을 달성한 영암군은 올해도 다양한 지정기부와 기금사업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암의 대표 고향사랑기부금사업은 지난해 개원해 전국에 알려진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이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0년 만에 소아청소년과를 열어 광주나 목포로 2시간 이상 걸려 원정 진료를 다니던 부모와 아이들의 불편을 해소했다. 지난해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영당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 '엄니, 영암극장 가시게 2건의 기금 사업도 선정해 추진했다.

참여자 97%가 만족도를 보인 영당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으로 총 3개 복지회관에서 103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95% 만족도를 기록한 엄니 영암극장 가시게 사업은 마을 어르신들을 영암읍 영화관까지 버스로 싣고 영화와 영화를 보여주는 효도 프로그램이다. 군은 취약계층에게 2.5t 세탁차량이 찾아가 빨래해 주는 '기찬 이동빨래방 운영 사업' 시행도 앞두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전국에서 보내주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이 영암군민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분이 영암에 고향사랑기부금에 연말정산 혜택과 함께 풍성한 답례품 선물도 받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굴비로 정비 등 3개 사업  
영광군 특별교부세 17억 확보

영광군이 군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2024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장세일 영광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군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3개 사업, 17억원 규모로 ▲법성면 굴비로 인도정비 7억원 ▲염산면 미동1계 누수저수지 보강 7억원 ▲군남면 군남천 제방보수 3억원이다. 법성면 굴비로 인도정비는 상가가 밀집한 법성면 굴비로에 노상 주차장을 조성하고 보행로를 설치해 차로와 보행공간을 분리하는 사업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www.e-dk.co.kr

##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